

고양시자살예방센터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지키는 생명플러스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줄어들던 자살률이 지난해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2위였던 자살률이 다시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에 고양시는 자살예방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2월 27일, 일산서구 주엽동에 '고양시자살예방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다.

글 이현화(고양시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사진 고양시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 영화제



생명지킴이 교육

한국, 하루 평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37.5명

2019년 9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3,670명으로 전년 대비 1,20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37.5명인 셈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률은 26.6명으로 전년 대비 2.3명 증가했다.

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고양시는 자살예방사업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위탁을 맡겼으며 센터장은 일산병원 박선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상근직원으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임상심리사 등 13명의 실무자가 자살예방사업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함께 만드는 희망



생명사랑&생명존중 프로그램

- 생명사랑 마을 : 생명사랑 캠페인(힐링 프로그램), 생명지킴이 교육, 지역 내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회의 진행
- 생명사랑 영화제 :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해 함께 감상하고, 힐링 토크를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
- 찾아가는 토닥토닥 버스! 마음건강(스트레스 측정+정신건강상담) 버스 매주 운영

자살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생명지킴이 교육

생명지킴이란 자살예방교육을 받은 후 주변 사람 중 자살 위험 신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본 기관과 같은 전문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대상자별(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군인, 경찰, 소방), 소요 시간별(1시간, 110분, 2시간, 3시간)로 다양하다.

소상공인도 함께하는 안전한 고양시 만들기

자살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자살수단 차단사업

번개탄판매개선사업 생명사랑실천가게	자살장소차단사업 생명사랑속박업소 (온스테이)	약물중독모니터링사업 생명사랑약국

※ 신규 생명사랑가게 상시 모집 중

함께 지키는 생명플러스



자살예방 상담

대상

- 계속해서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자살)으로 힘이 들 때
- 자살로 인해 소중한 가족(사람)을 잃은 분
- 어르신 중 예전보다 기력이나 활동이 줄고, 앞으로의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분(만 60세 이상)

내용

- 전화 예약 후 고양시자살예방센터 방문 진행
-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성 평가
- 평가 후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속상담 진행 (센터 및 가정방문 : 무료)
-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원(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복지 서비스 등) 연결



생명사랑 캠페인



토닥토닥 버스

고양시자살예방센터

대상 고양시민 누구나

이용시간 평일/주간 9:00~18:00,
휴일/야간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이용방법 전화문의, 예약 후 상담 진행

문의 031-927-9275

팩스/이메일 031-917-9275/goyangspc@daum.net

홈페이지 www.goyangmaum.org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3 가람상가
4층 고양시자살예방센터